

- 주요 뉴스: 연준 주요 인사, 추가 금리인하 지지. 관련 속도에는 일부 이견이 존재
 - 유로존 9월 HCOB 종합 PMI, 확장의 기준 50 하회. 경기하강 우려 확산
 - 이란 대통령, 이스라엘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준비 완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맹공
 - 중국 인민은행, 역레포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 기대 증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금리인하 추세 지속 전망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0.3%], 달러화 강세[+0.2%], 금리 상승[+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연준 인사들의 연내 추가 완화 지지 등으로 사상 최고치
유로 Stoxx600지수는 유틸리티 및 부동산 관련주 강세 등으로 0.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유로존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반영되며 상승
유로화 가치는 0.5% 하락, 엔화 가치는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 연착륙 기대 등으로 소폭 상승
독일은 9월 HCOB 종합 PMI 부진에 따른 금리인하 전망 강화 등으로 5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31.7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34.2원, 0.05% 하락). 한국 CDS 강보합

주 가					환 율					
		9/23일	9/20일	전일대비			9/23일	9/20일	전일대비	
주 가	미국	5,718.6	5,702.6	+0.28%	국채 금리 10y	미국	3.75%	3.74%	+1bp	
	유럽	516.32	514.26	+0.40%		독일	2.16%	2.21%	-5bp	
	중국	2,748.9	2,736.8	+0.44%		영국	3.92%	3.90%	+2bp	
	일본	휴장	37,724	-		CDS 5y	한국	31bp	31bp	+0bp
	한국	2,602.0	2,593.4	+0.33%			중국	62bp	60bp	+2bp
환 율	달러지수	100.92	100.72	+0.20%	위험 지표	EMBI+	-	393	-	
	유로화	1.1111	1.1162	-0.46%		VIX	15.89	16.15	-1.61%	
	엔화	143.61	143.85	+0.17%		WTI유	70.37	71.00	-0.89%	
	위안화	7.0521	7.0470	-0.07%	원자재	구리	428.9	428.2	+0.18%	
	원화	1,334.8	1,333.0	-0.13%		금	2,628.7	2,621.9	+0.2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주요 인사, 추가 금리인하 지지. 관련 속도에는 일부 이견이 존재

- 시카고 연은 굴스비 총재는 경기 연착륙을 위해 내년 여러 번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 또한 금리를 중립수준으로 낮추려면 가야할 길이 멀다고 평가. 아울러 9월 FOMC에서 50bp의 금리인하로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시작한 것은 적절하며, 연착륙을 원한다면 금리인하가 뒤쳐지지 않아야 한다고 첨언
- 미니애폴리스 연은 카쉬카리 총재는 위험의 균형이 고물가에서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발언. 다만 향후 금리인하 속도는 느려질 것이며, 연내 2번의 FOMC에서 각 0.25%p 금리인하를 예상한다고 발언. 경제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소비자 지출은 견조하다고 언급
-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는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위험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큰 폭의 금리인하로 통화긴축 완화를 시작한 것은 중립금리에 좀 더 가까이 가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견 피력. 또한 인플레이션 완화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부연
- 한편 뉴욕 연은은 국채시장의 유동성이 '22년 금리인상을 시작하기 전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 특히 '23년 중반부터 시장에서 매수 매도 호가의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설명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9월 S&P 글로벌 종합 PMI, 전월비 소폭 하락. 물가상승 압력은 증가

- 9월 S&P 글로벌 종합 PMI는 54.4를 기록하여 전월(54.6) 대비 소폭 하락.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 한편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의 가격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에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 미국 하원, 임시예산안 처리 합의. 연방정부 셧다운 회피 등이 목적

- 양당의 하원 지도부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발표. 구체적으로 12/20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은 현 수준에서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 소식통에 따르면, 상원은 25일에 표결에 나설 전망

■ 미국 상무부, 중국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착한 차량 판매 금지 추진

- 중국산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은 '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 장착 차량은 '29~'30년식 모델부터 자국 내 판매를 금지할 방침. 이는 운전자 정보의 중국 유출 우려 때문.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중국산 자동차 판매는 사실상 중단될 전망

■ 미국 대선 지지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 등 일부 경합 지역에서 우위

- 뉴욕타임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애리조나·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 등 남부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보다 지지율이 2~5%p 높은 것으로 확인

■ 유로존 9월 HCOB 종합 PMI, 확장의 기준 50 하회. 경기하강 우려 확산

- 9월 HCOB 종합 PMI는 48.9를 나타내 3월 이후 처음으로 확장의 기준인 50을 하회. 유로존 경제는 스태그네이션 국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가파른 신규수주 감소 등을 고려 시 조만간 경제활동도 줄어들 가능성(Hamburg Commercial Bank). 3/4분기 성장률은 0.2%로 2/4분기와 동일한 수준 나타낼 것으로 추정

■ 이란 대통령, 이스라엘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준비 완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맹공

-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긴장을 낮추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 하지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에 대한 대대적 공습을 지속. 최근 공격에서 356명이 숨졌는데, 이는 '06년 이후 최대 규모

■ 중국 인민은행, 역레포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 기대 증가

-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14일물 역레포 금리를 1.95%에서 1.85%로 인하. 또한 역레포 시장에서 2346억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은행 시스템에 공급. 한편 판궁성 총재는 24일 경제 개발을 위한 금융 지원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등 당국의 경제성장 촉진 노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 제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24 현지시각 기준)

- 연준 보우먼 이사 발언, 미국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 미국 7월 FHFA 주택가격지수 및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 발언,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큰 폭 금리인하, 금융시장 전반에 파급 효과 지속될 전망 - WSJ

(Here's What Happens to Markets When Interest Rates Fall, in Charts)

- 최근 금융시장 전반에 금리인하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과거 기록을 통해 향후 전망을 가늠. 역사적으로 주식과 회사채는 첫 금리인하 후 12개월 간 성과가 우수. 다만 이는 경제 상황이 좌우. 경제 성장이 유지되면 기업 실적은 개선되지만, 금리가 경기침체 회피에 불충분할 경우, 모든 자산에서 투자가 급감
- 구체적으로, 금리인하 기간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완만한 상승세 지속. 이는 당국의 정책금리 인하로 향후 경제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 시장금리가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투자자 전망이 반영된 결과. 주식의 경우 중소형주의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우수. 이 외에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 달러화 약세, 금 가격 상승 등이 동반

■ 미국 모기지 금리 행방, 실업률의 큰 폭 상승이 없다면 하락폭은 제한적 예상 - 블룸버그

(We Get Either 4% Mortgage Rates or a Stable Job Market)

- 지난주 금리인하에도 30년 모기지 금리는 보합 내지 소폭 상승. 이는 경기 연착륙 기대로 연준이 연방기금금리를 결국에는 3% 내외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이를 고려한다면, 30년 모기지 금리가 지난 11개월 동안 8%에서 6.15%까지 하락했으나 내년 봄 주택 거래 시즌까지 추가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이에 향후 큰 폭의 모기지 금리 하락은 실업률이 급등할 경우에만 가능. 만일 내년 실업률이 5% 수준으로 상승하면, 연준은 연착륙 달성에 실패했다고 평가하여 연방기금금리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며, 모기지 금리 역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재정 예외주의, 일본과의 동일선상 비교는 곤란 - 블룸버그

(America's Fiscal Exceptionalism Is All Too Real)

- 일부에서는 일본의 높은 GDP 대비 부채비율(250%)을 거론하며 미국의 부채비율(123%)이 우려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 하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 판단에는 통합 공공부문의 순부채가 중요. 이를 적용하면, '22년 일본과 미국의 부채비율은 119%로 동일
-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 달리 공공부문이 대규모 금융자산을 보유. 아울러 공공부문의 금융자산이 미국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며, 이는 재정여력을 강화. 미국의 경우 이미 매우 높은 부채비율이 향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채금리 상승 및 성장을 둔화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

■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 ECB의 신속한 금리인하 필요성 고조 - 블룸버그**

(Euro Zone's Teetering Economy Fuels Bets on Faster ECB Rate Cuts)

- EU의 경기회복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 실제로 20개 회원국의 생산량은 2/4분기 감소하기 시작했고, 소비자는 지출에 신중. 또한 러시아 및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은 증가하고 중국의 성장 둔화는 역내 일부 기업의 실적 부진을 초래. 아울러 9월 HCOB 종합 PMI는 48.9를 기록하여 확장의 기준인 50을 하회
- 이에, ECB 일부 주요 인사들은 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제약적 수준에서 유지되면 불필요한 경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또한,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큰 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했는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ECB에 더욱 공격적인 추가 금리인하를 요구

■ **미국 주가, 대선 접전 시 당선 전 변동성 증가 후 상승세 지속될 가능성 - Financial Times**

(Markets fall before close elections and surge after, study shows)

■ **미국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 금리인하로 인한 혜택은 제한적 - WSJ**

(The Rate Cut Won't Save These Real-Estate Ow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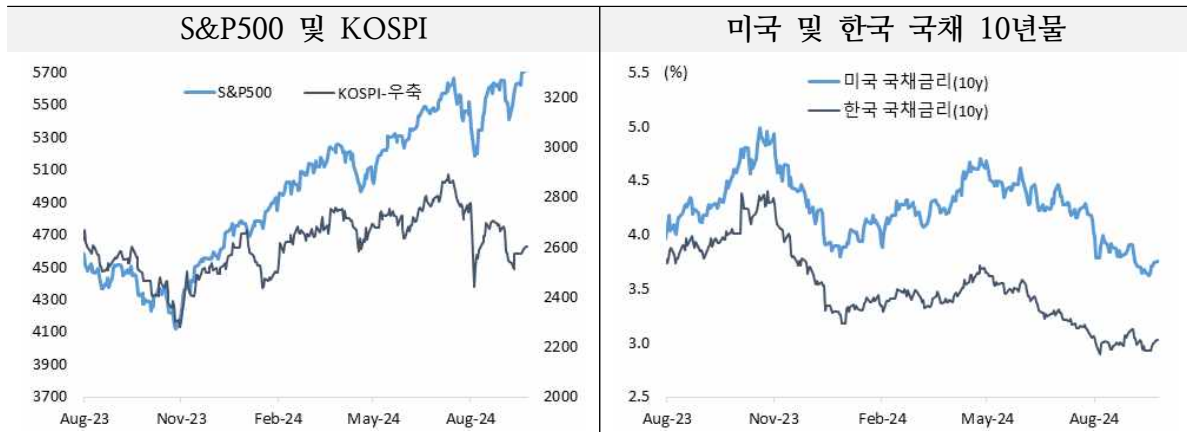
■ **미국 기업의 공격적 자사주 매입, 금리인하 등으로 늘어날 가능성 - Financial Times**

(Fed rate cuts should boost corporate America's buyback bi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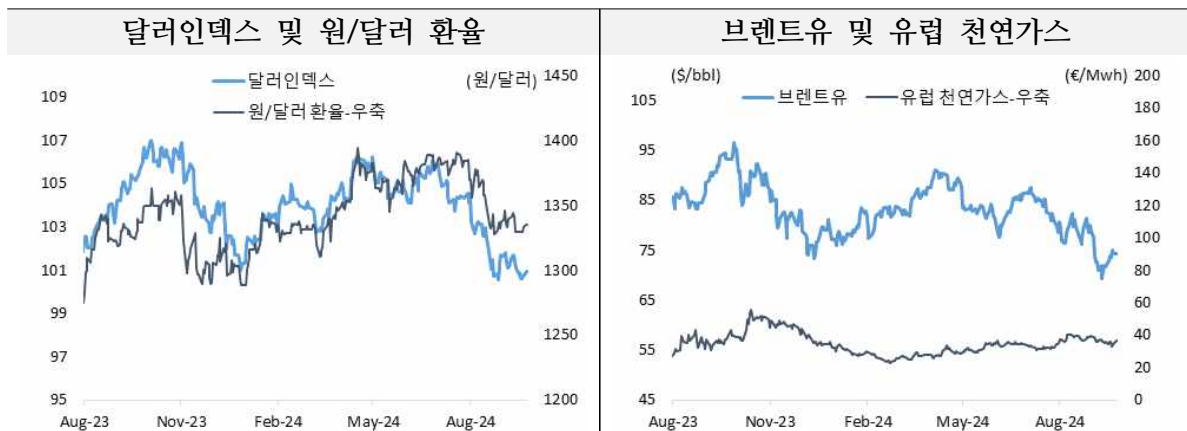
■ **미국 트럼프의 보호주의 강화 정책, 자국과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 - Financial Times**

(Trumponomics: the radical plan that would reshape America's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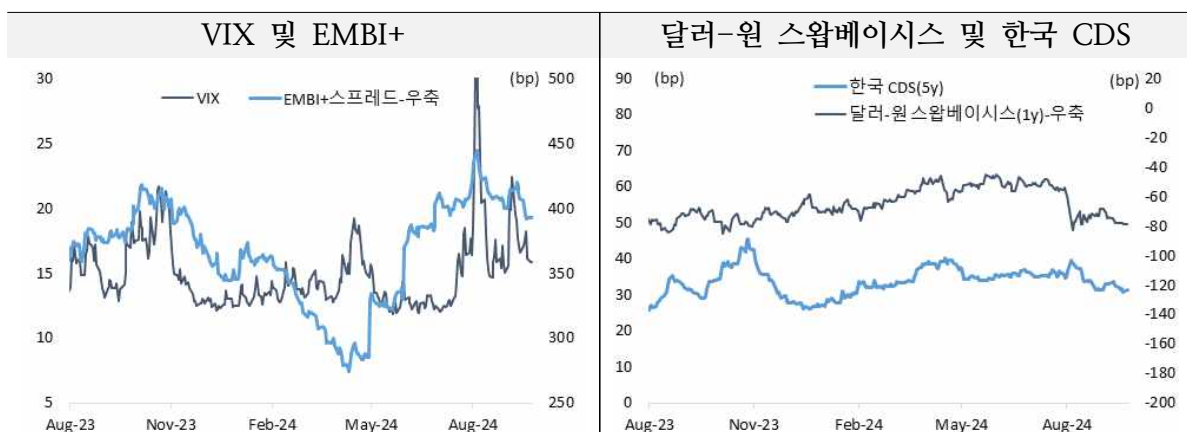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